고룡정보산업고 '성폭력 가해자 회복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 가보니

지난날의 잘못 깊이 반성 꿈을 말하며 미래 설계

피해자에게 편지쓰기·역할극 등 통해 가해자들 변화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고룡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법원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청소년 양성평등 성교육-성폭력 가해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소방관이 돼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용접 자격증도 따서 조선소에서 근무할 거에요."

평범한(?) 아이들의 꿈이 아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고룡정보산업고(광주소년원)에서 (사)광주 여성의 전화 주최로 '성폭력가해자 회복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이 열렸다. 이날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말하고 미래 계획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게 쑥스러운 듯 서로 돌아보며 때론 웃었다가 때론 진지해지기를 반복하는 등 여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었다.

(사)광주여성의 전화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지난 7월부터 매주 두번씩 모두 15차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성격유형 검사를 비롯해 성폭력 제대로 알기, 양성평등이란 무엇인지 등 이론수업부터 시작해 가족화 그리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분노표현하기, 역할극,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비사가 꿈인 A군은 "처음에는 하기 싫었죠.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쉬워요.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웠고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느끼게 됐어요.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역할극,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자신의 장점 쓰기, 가족화 그리기 등을 꼽았다.

역할극이 인상적이었다는 B군은 "피해자 엄마가 됐을 때는 딸의 상처가 가슴 아프게 느껴졌고, 가해자 아빠로서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 죄는 지었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C군은 "남자와 여자의 심리차이 등 잘못 알고 있었던 성지식을 제대로 알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해자에게 편지를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쓰려니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늘 잘못된 행동만 했던 나에게 장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특히 D군은 "이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게 됐다"며 "사람들이 단지 소년원을 다녀왔고 성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경찰청과 각 시·도 교육청이 분석한 성폭력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2년 사이 44.3%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도 6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2005년 3천787명 ▲2006년 5천159명 ▲2007년 5천46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도 ▲2005년 1천329명 ▲2006년 1천811명 ▲2007년 2천13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광주여성의 전화 염미봉 성평등교육원장은 "음란물 등에 노출된 일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초·중·고교 때부터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가해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치료기법 등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최광선

아름다운 사람

요즘 TV를 보면 거의 똑같은 이미지에 인형처럼 깎아놓은 듯 예쁜 연예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성형수술이 아주 일반화된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반 노동자들의 30년 월급인 30만 위엔(한화 4천500만원)이 들어도 너도나도 하고 싶어하는 성형 열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한다.

너, 나 없이 무척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떤 성형이 가장 급선무일까?

페르시아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점토를 발견했는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겼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이 물었다. "아니 흙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나요?" 흙덩이가 대답했다.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원불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바는 일체유심조 즉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로 하면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사무쳐야 한다고 한다. 마음은 우주와 하나로 통하고 있는 만큼 마음을 알면 동시에 우주의 원리를 통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일까?

첫째,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상대방 마음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다. 까닭 있는 마음공부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사랑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라고 한다.

둘째, 생사의 원리를 알아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있는 날을 더욱 감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 단 며칠 다녀오는 여행에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과 내생을 바꾸는 그 길에 나설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인과를 알아 감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열반경(涅槃經)에 "전생 일을 알고자 할진대 이 세상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 일을 알고자 할진대 이 세상에 지은 바가 그것이다"라고 하셨다.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마음을 관조해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성형에 더욱 힘을 쓴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원불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교무〉

손 대신 입과 발로 캔버스 채우고…

장애인 작가들 '예술 혼' 한자리에

4일 오후 광주 서구문화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제14회 광주지역장애인작가 작품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제공〉

불편한 손 대신 입과 발로 캔버스를 채우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소리를 화폭에 담아 예술혼을 꽃피운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오는 9일까지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제14회 광주지역장애인작가 작품 전시회를 연다.

재능 있는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 이귀원(지체장애 1급)씨 등을 비롯해 광주장애인예술협회 작가 19명이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등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공예작품의 경우 소박한 도자기부터 화려한 색채의 비즈공예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일부 작품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문의 062-513-1080. /이은미기자 emlee@

기독교 사상가 삶과 정신 조명

광주 YMCA '오방 아카데미 개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 YMCA가 '오방 아카데미'를 개설,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매월 두 차례 목요일(오후 5시)마다 다석 유영모·무위당 장일순·오방 최흥종 선생의 삶과 정신을 차례로 조명한다.

'오방'은 광주의 첫 기독교인이자 광주 YMCA의 창설자인 최흥종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이정배 감신대 철학과 교수의 '유영모와 다석학파의 기독교 이해'(18일)와 이현주 목사(시인·동화작가)의 '무위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10월2일)가 예정돼 있다. 또 김한중 목사(화순YMCA 초대이사장)는 '오방 최흥종 목사와 광주의 영성인들'(10월16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밖에 10월 11일에는 '최흥종 목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순례행사를 진행한다.

광주 YMCA 관계자는 "최흥종 목사를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0074. /이은미기자 emlee@

'생명 나눔' 바자 7일 광주 원각사

광주 원각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경내 대웅전과 잔디마당에서 난치병 환우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바자를 연다.

이번 바자는 '생명나눔'을 주제로 열리며 사찰국수나 파전 등 전통사찰 음식을 선보이고 서적과 불교용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할 예정이다.

또 부산 홍법사 심산스님을 초청, 일요가족법회를 열고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할 예정이다.

일타 큰스님 일대기를 그린 '인연 1·2', '산은산 물은물'의 저자인 소설가 정찬주 초청,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되며 가수 류상호씨의 작은음악회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223-316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신기전 (15세) 최고급관
2관	맘마미아 (12세)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고사 (15세)/신기전 (15세)
5관	신기전 (15세)
6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체)
7관	지구(더빙) (전체)
8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18세)/썸머 솔스티스 (15세)
9관	맘마미아 (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신기전 (15세)
2관	지구 (전체)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장강7호 (전체)/놈놈놈 (15세)
5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체)
6관	고사 (15세)/미이라3 (12세)
7관	맘마미아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황토시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고사 (15세)/놈놈놈 (15세)
2관	아기와나 (15세)/쉿그녀에게 비밀이에요 (전체)
3관	맘마미아 (12세)
4관	맘마미아 (12세)
5관	스타워즈 (전체)/ 눈에는 눈 (15세)
6관	다크나이트 (15세)
7관	신기전 (15세)
8관	지구(더빙) (전체) /미이라3 (12세)
9관	월E(더빙) (전체) /신기전 (15세)
10관	신기전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맘마미아 (12세)
2관	다크나이트 (15세)/고사 (15세)
3관	신기전 (15세)
4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체)
5관	지구(더빙) (전체)
6관	맘마미아 (12세)
7관	신기전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피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지구 (전체)
2관	미이라3 (15세) / 눈에는 눈 (15세)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쉿 그녀에게 비밀이에요 (전체)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7관	스타워즈-클론전쟁 (전체)
8관	신기전 (15세)
9관	맘마미아 (12세)
10관	신기전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신기전 (15세)
2관	신기전 (15세)
3관	지구 (전체)
4관	맘마미아 (12세)
5관	다크나이트 (15세)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